

몸집 키우기 급급... '1인 시스템' 바뀌어야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 새 판을 짜라

②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는 미술의 도시다. 1992년 지방 최초의 국립미술관인 광주시립미술관을 개관했고, 1995년 국제현대미술전시인 광주비엔날레를 국내 최초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과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계의 양대 핵심 축인 두 기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지역 문화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두 기관이 쓰는 예산은 연간 70~8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대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앞으로의 20년과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공통된 의견이자 바람이다.

광주비엔날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 문화인들과의 융화다. 지역 문화인들이 주축이 돼 출발한 광주비엔날레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 문화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만큼 깊어졌다.

최근 운영현 광주시장 당선인의 "비엔날레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할 시점" 발언도 이 같은 지역 문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비엔날레 - 미술인과 소통 부족·실무자 양성 소홀 미술관 - 소장품·전시 관람객 불잡을 '임팩트' 부족 예산 연 70~80억 쓰고도 역할 못해... "원점 재검토"

디자인비엔날레, 폴리, 세계비엔날레협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몸집'은 키웠다. 하지만 정작 지역 문화계와의 소통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독단적 재단 운영 등으로 거대한 권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목표로 창설, 재단이 위탁을 맡아온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제동을 걸자 '산업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제5회 행사를 광주디자인센터와 재단이 공동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페어'도, '비엔날레'도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행사로 변질돼 버렸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재단과 디자인센터로 나눠진 현 운영시스템을 한쪽으로 이관, 행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창설된 세계비엔날레협회를 바라보는 지역문화계의 시선도 굵지 않다. 이윤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고, 지난해 6월 사무국을 광주로 유치했지만 연간 수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협회가 아닌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비엔날레가 20년을 지나오면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재단 내부의 인력 양성에 소홀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방면의 실무진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했다기 보다는 지나치게 특정 인물에 의존해 돌아갔다는 의미다.

관람객 수 등이 문화행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절대 수치는 아니지만 2010년(8회) 32만7981명이던 비엔날레 본 전시관 관람객은 지난 2012년(9회) 22만8428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16억6110만원(2010년)이던 입장권 수익도 2012년 12억2974만원으로 현격하게 줄었다.

재단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모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내외 환경 분석, 비전, 조직 운영, 예산, 재원조성 등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문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기점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중략)...운영기반과 조직 역량을 강화할 시점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12월 용역결과를 받고도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결과보고서 외부 공개도 꺼리고 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면 보다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재단 관계자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정점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열린 '광주비엔날레 인수위원회 보고'에는 인수위원 5명 중 분과장을 포함한 2명이 불참, "광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인수위의 의지에 의구심이 들게 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지방 최초의 국립미술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시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특히 해마다 아트페어를 통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작품 수십여점도 질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지난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단 3점의 작품을 구입한 것과도 대비된다.

블록버스터 전시의 부재도 아쉬운 점이다. 대구미술관의 경우 지난해 '쿠사마 아요이'전에 이어 올해 '장 사오강'전을 잇달아 열면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광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그만한 수준의 전시회를 만날 수 없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점성성 문제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과 광주시립미술관을 연계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 문화계가 올해 20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열린 제9회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지원 프로젝트 설치작가 이불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프로젝트에 오는 9월 열리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퍼포먼스·설치 작가 이불(50·사진)이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후원대학동차 후원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우리나라 중진 작가 1명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2년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연 이불은 작품 활동 초기부터 퍼포먼스, 설치, 조각 작업을 통해 아픔, 파괴 등을 주제로 인습을 타파하는 작업을 펼친 작가다. 1990년대 후반 사이보그 시리즈 작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개인의 기억·경험과 결합된 거대 서사를 대규모 설치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춤, 광주를 품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동구 로드아트 페스티벌' 1년 내내 폴리 등 문화공간 찾아 춤의 향연 펼쳐

무등산 자락 전통 문화관, 광주 폴리, 금남공원, 우재길 미술관.

올 1년 내내 광주 동구 지역의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은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을 주제로 '광주 동구 로드아트페스티벌'을 연다.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과 클래식 연주,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특히 베를린과 싱가포르 무용수 등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외국 현대무용가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곳곳에 언제나 문화 예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도한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막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4시 금남공원에서 열리는 '춤, 춤을 품다'다. 시민과

함께하는 디제잉 팝핀과 커뮤니티 댄스무대로 한국무용 '화풍연가', 현대무용 '춤 때 일상은 빛난다'가 공연되며 박사이즈 크루 문대근 대표가 팝핀을 선보인다.

28에는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에서 '춤, 클래식과 현대미술을 품다'를 주제로 공연한다. 관현악 그룹 '양상블 안토닌'의 연주와 함께 퍼포먼스 작가 노다, 임진세 씨가 참여해 현대 미술 퍼포먼스를 벌인다. 또 현대 무용 '삶의 흔들림조차 춤이다'를 선보인다.

7월1일 금남로 지하철역에서는 '춤, 젊음을 품다'를 주제로 재즈, 밸리댄스, 힙합, 팝핀, 라인댄스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8월 16일과 9월 20일에는 '춤, 국악을 춤다', '춤, 광주를 품다'를 주제로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공연이 열린다. 국

악 전문 공연장인 전통문화관에서 현대무용을 만날 수 있는 이색 행사다.

'춤, 광주 폴리를 품다'(9월24일)는 조선대 무용과 문화 행사 기획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다. 동구 지역에 자리한 폴리를 돌며 행사가 진행된다. 구 시청 사거리의 광주사랑방, 대성학원 앞 잠망경과 정자, 장동 로터리의 소통의 오두막 등이 대상지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피날레 행사로 준비한 '동구 아시아댄스 페스티벌-춤, 아시아, 세계를 품다' 프로젝트다. 광주시 동구 장동 Theater연바람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는 외국 현대 무용수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역 민간 단체의 공연에 외국 무용수가 참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공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를린 무용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18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진다. 조선대학교 무용과와 각국 무용수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를린'이 함께 바라보는 광주' 공연을 갖는다. /김미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